

#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무산’

## 오월, 모두의 정신으로

〈2〉‘정쟁’에 번번이 가로막혀

9차 개정 이후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특히 이번 개헌은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극복하며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광주·전남을 넘어 전 국민적 공감대로 확산했으나, 또다시 정쟁에 발목이 잡혀 무위로 돌아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모인 시민들이 무장 권력을 막아낸 것처럼 46년 전 광주 시민들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신군부의 총과 칼, 군화 발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신군부는 이를 ‘난동’이라고 왜곡 폄하하며

1987년 9차 개헌 당시 첫 논의

신군부 평가여·야 입장차 불발

정치권 이해관계에 매번 ‘발목’

“후반기 국회서 이뤄지길 기대”

력 진압했지만, 오월 영령이 흘린 피는 ‘저항 정신’으로 남아 1987년 6월 항쟁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전국적인 저항에 못 이겨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6·29 선언을 발표했고 신군부 체제의 5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 등이 담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인 통일민주당은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으려 했다.

독재에 맞선 시민 저항의 4·19민주이념과 가치가 맞닿은 항쟁의 역사를 명시함으로써 군사 독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민주정의당은 1980년 8차 개헌 당시 전문에 담긴 ‘제5민주공화국’ 관련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신군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여·야의 요구는 모두 빠졌고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으려던 최초의 시도는 불발됐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신군부에 대한 단죄가 본격화되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가치 재조명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12·12군사반란 연루자에 대한 처벌 근

거가 마련됐고 1997년부터 5월18일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돼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려왔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한 예우도 한층 강화됐고,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또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이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위원회까지 출범해 활동하면서 국민적 인식 수준도 향상됐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목소리를 내왔고 정치권이 응답하면 서 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며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권력구조 개편 내

용에 이견을 보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그로부터 약 8년 만인 올해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쟁점 없이 여야가 모두 약속했던 내용들만 담겼던 터라 기대가 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추진’을 이유로 지난 7일 투표에 불참한 데 이어 8일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고 이번 시도도 수포로 돌아갔다.

윤석열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개헌 특위를 꾸려 합의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불발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며 “후반기 국회에서 꼭 이뤄지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연상 기자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YMCA 1층에 마련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며 시민들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윤찬웅 기자

## “참사 발생 497일...진상규명 안돼 안타까움”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시민분향소

“기사로만 봤던 참사의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10일 오전 11시께 광주 동구 소재 광주YMCA 1층에 마련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다.

해당 분향소는 참사 발생 500일을 사흘 앞두고 설치됐는데, 이는 최근 범정부 차원의 공항 재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유가족들이 온전한 유해 수습과 희생자 추모,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등을 위해 조치한 것이다.

유가족협의회는 다음 달까지 분향소를 운영

유가족, 유해 수습·조사 경과 공유

광주YMCA 1층...내달까지 운영

시민들 잇따라 발걸음...헌화·추모

하며 사고 조사 상황 등을 시민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분향소 내 검은 제단 위에는 희생자 179명의 위패가 놓였고, 벽면에는 유가족 동의를 받은 희생자들의 생전 사진 50여장이 걸려 있었다.

시민들은 헌화를 하며 고인들의 넋을 기렸고, 일부는 벽면의 사진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안내판에 적힌 사고 당시 상황과 유해 재수색 현황 등을 읽으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초등학교 자녀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은 문철승(40대)씨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희생됐다”며 “아이들과 함께 꼭 한 번 들르고 싶었다”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서울여대 오월분민주주의해설단 학생들도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장민경(21·여)씨는 “분향소에 와보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음이 느껴진다”며 “기억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유가족들께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김유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발생 497일이 지났지만 수사와 조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참사 원인과 조사 상황 등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진행된 유해 재수색 과정에서 유해 28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현재까지 수습된 유해는 총 1천257점으로 집계됐다. /윤찬웅 기자

## ‘묻지마 살인’ 20대 오는 14일 신상공개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이름·사진 등

지역 최초...사이코패스 판정 오늘

최근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의 신상이 공개된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24)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오는 14일부터 30일간 누리집에 게시한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서 경찰은 A씨의 범행이 규정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광주 지역 흉악범죄 피의자 중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건 A씨가 최초다. 신상 공개는 A씨가 동의하지 않아 유예 기간 후 이뤄지나,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의 이름과 사진이 게시된 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순천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박대성도 경찰의 신상공개 전 이름 등이 유포돼 뒷말을 남겼다.

이와 별도로 A씨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결과는 11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 결과 40점 만점 중 20점이 넘으면 국내에선 통상 사이코패스로 분류하고 있다.

피해자와 A씨가 접점이 없어 이상동기 범죄로 보이지만, 범행 전 후 우발적으로만 볼 수 없는 정도도 커 정확한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A씨가 피해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를 전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점이 드러나 경찰

은 두 사건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 오전 12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B(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등학생 C(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광주여성민우회는 A씨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 범죄 가능성을 엄중히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재영 기자

### 무등산서 실종 30대 닷새 만에 구조

무등산에 올랐다가 실종된 30대가 경찰의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됐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10분께 A(30대)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오전 10시에 운동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간 탓에 위치 파악이 어려웠지만,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그가 택시를 타고 증심사 방면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등산로로 향했다는 걸 파악한 경찰은 산행 중 조난을 당했을 것으로 보고 소방 당국과 함께 수색에 나서며 지난 1일 오전 약사암 인근에서 그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오랫동안 음식과 물을 섭취하지 못해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서 긴급 이송된 뒤에 현재는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난 기간 A씨는 생수 2병으로 닷새를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연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